

LUXURY IS



윤보 김기창, '노점', 1953~1955, 아라리오갤러리, © (재)윤보문화재단

이승민 아트 PR 에이전시 wh-bn 대표. 가고시안, 글래드스톤 갤러리, 두산갤러리,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국내외 주요 갤러리 및 기관들이 자신들의 비전과 활동을 보다 폭넓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 전략을 구축·실행 중이다. 현대백화점, 고려대학교 등에서 미술 시장 및 갤러리 산업 관련 강연을 진행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담채로 물든 일상의 찰나

윤보 김기창이 광복 직후인 1953년부터 1955년까지 그린 작품 '노점'은 이전까지 그가 보여준 풍경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일생 동안 서민의 정서를 화폭에 담아낸 작가답게 이번 작품 역시 분주한 시장통 속 사람 냄새 가득한 장면이 특징적이지만, 왜색을 덜어낸 정제된 팔레트와 단순화한 형태, 화면 분할 등의 요소에선 새로운 시대를 맞아 윤보가 꾀한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여러 겹의 채색으로 포화되었던 자리에는 한 걸 여유를 찾은 듯 옅은 색의 담채화적 향연이 어지고, 원근감을 배제한 화면에서는 각각의 인물들이 열성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찰나의 순간들이 소박한 매력을 드러낸다. 유년 시절 발생한

후천적 청각장애를 평생 감내하며 살아야 했던 윤보가 마주하던 노점 풍경은 어땠는지 상상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노점은 윤보뿐 아니라 아내인 우향 박래현도 즐겨 다룬 주제였다. 결혼 후 매년 부부 전시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랑과 예술 모두에 매진했던 두 화백이기에 동일한 풍경을 주제로 한 작업 또는 합작이 종종 발견되고는 한다. 예술가이자 남성, 여성, 장애인으로서 마주한 삶의 기쁨과 번뇌를 진솔하게 화폭에 담은 이들의 궤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보다 풍요로운 일상을 만끽하게 되지 않을까.

EDITOR 박이현 WRITER 이승민
COOPERATION 아라리오갤러리